

2 월 9 일 2025 년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 예배 초청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 환영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다함께
- 경배와 찬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함께
- 대표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정병철 장료
- 광고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인도자
- 설교 복음에 합당한 삶 (빌 1: 27-30) 이진수 목사
- 결단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 다함께
- 축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이진수 목사



헤이워드 침례교회

24742 La Playa place Hayward, CA 94545 Tel: 510-732-9191
 Fax: 510-732-1912 교회 홈페이지: hkb.church

“매이고 당할 때” (빌립보서 1:12-18)

우리가 인간적으로 원하는 삶은 고민이 없고, 근심이 없는, 고통이 없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생각지 못하는 당하는 일, 매이는 힘든 일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도 자신이 당하고 매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매였습니다. '매였다, 당했다' 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 당하고 매인 일을 만나면 절망합니다. 분노합니다. 실망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18 절을 보면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바울이 당하고 매였는데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자신의 매인 것, 당한 일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상황을 넘어 선하게 역사하시고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하고 매인 상황에 시선을 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지금 나는 알지 못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선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주님께 시선을 둘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초점을 “내가 당했느냐, 당하지 않았느냐? 내 뜻대로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내 원함대로 되고 있느냐 되지 않고 있느냐?”에 둡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는 초점을 항상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이런 당한 일, 어려운 일, 매인 일이 생길 때 우리가 질문해야 할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겨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 내가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일까?” 14 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힘으로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 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18 절에도 “그렇지만 어떨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 도전이 됩니다. 나에게 초점 맞춰진 인생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 초점 맞추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떻게 되든지, 내가 비록 당하고 매일지라도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심과 섭리 속에 행하신 일임을 믿고 담대함과 여유를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소식

- 1. 환영** -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 2. 생명의 삶** - 오늘부터 요셉반 생명의 삶
성경공부가 시작됩니다.
- 3. 부장 모임** - 부장 모임 오늘 오후 1 시에 모입니다. .
- 4. 운영위원모임** - 운영 위원회 모임은 2 월 16 일
주일 오후에 모입니다.
- 5. 비전 트립** - 한국 소망 공동체 사역으로
한국 시설 고등학생 3 명이
미주 비전트립을 2 월 19-20 성깁니다.
- 6. 주일 설교자** - 2 월 16 일 주일예배 설교는
정주환 목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행사 및 모임

2 월	성찬식	2 월 2 일 (주일)
2 월	비전트립	2 월 19-20
2 월	각기관 월례회	2 월 23 일 (주일)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2/09	2/16	2/23	3/02
대표기도	정병철	유영민	손정임	차은희
헌화성도	이은진	유영민	정명희	
봉사당번	사랑구역	사랑구역	각기관 월례회	믿음구역

예배출석자 및 헌금

지난주 예배 출석	
지난주 헌금 통계	

후원 선교지 안내

구역	구역인도자 구역장	연락처	선교사
사랑구역	유경주	510-634-9374	정주환 (소망공동체)
	유경애	925-719-3673	장철호 (미얀마)
믿음구역	심영민	415-205-2631	박완주 (헝가리집시)
	손정임	808-277-1072	K 선교사 (Malaysia)
소망구역	조현숙	510-396-6952	김정림 (탄자니아)
	한영미	510-410-8718	조항권 (우간다)

성경공부

새가족 성경공부	4 주
확신의 삶	7 주
TEE 성경공부-12 주	12 주
설경 통독방	52 주

아멘이 있는 예배

작년에 아시는 목사님이 한국에 나가실 일이 있으셔서 저에게 그 교회 주일예배 설교 말씀을 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 교회마다 예배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제가 느낀 그 교회의 예배의 분위기는 너무 정적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제가 저희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것과 목회자 모임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것을 아시기에 예배 찬양 인도까지 맡기셔서 찬양 3-4 곡 인도했는데 찬양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 기쁨, 감사, 은혜, 즐거움, 헌신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찬양을 드리는데 팔짱을 끼고 있는 분들, 입은 벌리는데 소리가 거의 내지 않고 입만 벌고 거리는 분들, 눈에는 생기가 없고, 얼굴에는 무표정한 성도님들이 많았습니다. 잘 따라오지 않는 분들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도 찬양에 힘쓰시는 몇분의 성도님들을 보며 열심을 다해 찬양을 인도한 후에 저는 자리에 앉았고, 예배 인도하시는 장로님이 나오신 후에 마이크를 잡고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이제 찬송가 00 장을 부르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지금 내가 했던 찬양은 무엇이었지?”라고 당황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예배 맨 앞에 찬양하는 시간을 이 교회에서는 여전히 “준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나오셔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어느 누구도 “아멘”하시는 분이 없으셨습니다. 보니까 저만 맨 앞에서 그 집사님의 기도의 내용에 동의되고 간구하는 내용에 마음에 다가올 때 “아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중에도 어느 누구도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성도님들은 없으셨습니다. 기도 중에 혹은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아멘”을 꼭 해야 하는가에 대해 호불호가 있습니다.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멘이라는 말은 성경 히브리어로 “진실로”를 의미하는 의미와 함께 “그렇게 될지어다”는 뜻으로 주로 동의나 찬성의 표현입니다. 고린도후서 1:20 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 중에, 대표기도와 설교 말씀 중에 공감되는 내용과 하나님의 축복, 약속, 도전의 말씀에 감동이 되고 마음에 다가올 때 “아멘”을 하시는 것을 권면합니다. 더 나아가 찬양할 때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수동적인 정적인 자세가 아니라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표현하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크게 입을 벌려 찬양하고, 손뼉을 치고, 손을 들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감사함과 기쁨이 표정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아멘”의 반응이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기뻐하며 반응하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과 교회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Worship services & Meetings*

주일대예배 <i>Sunday Main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본당 <i>Main Sactuary</i>
어린이예배 <i>Sunday Children's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유치부실 <i>Children's Room</i>
영어예배 <i>Sunday English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영어부예배실 <i>English Service Room</i>
주일성경공부 <i>Sunday School</i>	주일오후 12 시 <i>12:00 P.M.</i>	유년부실 <i>Group Class Room</i>
새벽기도회 <i>Morning Prayer Meeting</i>	매일 화-토 6 시 <i>Daily T-Sat 6 a.m.</i>	본당 <i>Main Sactuary</i>
구역모임 <i>Local House Meeting</i>	매 월 <i>Monthly</i>	구역별 각가정 <i>Local church member's home</i>

섬기는분들 *Church's Servants*

담임목사:이진수 <i>Sr. Pastor: Timothy Y.</i>	510-415-0671	timjdsn@gmail.com
Youth Ministry: Erik & annie Komoto	951-295-4769	Erik.Komoto@gmail.org
어린이교회: 이은진 <i>Children's Ministry: Joy Song</i>	510-415-1696	Ejoysong@gmail.com

교회약도 *Church Map*

